

教職員 健建問題 및 養護室 利用實態에 關한 研究

崔 載 善 *

A Study on the Teachers' Health Problems and Their Visiting Frequencies of School Clinics

Jae Sun Choi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teachers' health problems that focuses on the frequencies and types of their visiting to school clinics and the management of health-related problem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re consisted of 1,650 teachers employed at 30 public schools in the Seoul area.

Data for the study came from diagnostic records for 1986,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type survey conducted between June 20th and of the same year and from other documents recorded by school nurs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teachers' health problems.
 - a) According to health diagnosis records, 6.1% of all teachers had a health problem. Liver-related ailments topped the list, followed by circulatory and diabetic problems.
 - b) The survey data had 71.9% of the respondents indicating that they suffered from some health problem. The most frequent response concerned respiratory problems, followed by gastro-intestinal and nervous system problems.
 - c) A check of clinic utilization records revealed that the main reasons for visiting are concerned with fatigue (30.5%), gastro-intestinal(18.7%) and respiratory(18.2%) ailments. These three

* 서울대학교 保健大學院

categories accounted for 67.4 % of total use.

2. Frequencies of their visiting to school clinics 40.5 % of the teachers indicated that they have visited the school clinic. And 62.0 % visited it with a self-diagnosed ailment and 15.3 % utilized the facility after a problem had been detected in a health examination. Clinics were visited a total of 1,458 times which breaks down to 0.9 times per month per teacher.

For a patient, the figures are 2.2 times on the average with a range from 1 to 19.

3. Health management problems

- a) Of those respondents, 53.4 % stated that they didn't have enough time to consult about their health problems and diagnose their disease.
- b) Also, 47.3 %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school nurses should give health counsels and health education.
- c) When questioned about improvements in the current system, the teachers placed importance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35.2 %) and pre- and posteducation concerning periodic health examinations.

In conclusion,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considered:

First, school administrato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health problems of the teachers.

Second, school nurses should be more active in managing a health program for teachers.

Finally,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rses should be continually upgraded so that they can dispense proper and timely care for teachers.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우리나라는 1949年 敎育法 第89條에 各級學校에서의 學校保健事業의 實施와 養護施設의 設備에 대한 規定을 두어서 學校保健事業이 必要하고 또 實施되어야 함을 闡明한 바 있다.

그후 1967年에는 「學校保健法」이 制定되었고 1969年에는 「學校保健法 施行令」이 公布되어 學校保健事業이 더욱 具體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 2) 3)

學校保健法에 따르면 學校保健의 對象을 學生 및 敎職員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그들의 健康을 保護 增進시킴으로써 學校敎育의 效率化를 기

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2) 4)

學校保健은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크게 보아 세가지의 活動領域을 가지고 있다. 즉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管理, 學校環境의 管理, 保健敎育이 그것이다.5) 6)

이와같은 事業活動들이 窮極的으로는 學生 및 敎職員으로 하여금 健康에 있어서 自己管理의 能力 즉, 自己看護(self-care)의 能力을 기르도록 하는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學校保健을 위하여 특히 強調되는 점이다.5) 7) 8)

1986年 學校保健 管理指針에는 看護敎師가 獨立的으로 學校의 健康水準을 査定하고 이에 의한 計劃을 樹立하여 이를 遂行하고 評價하는

積極적이고 責任感있는 學校保健事業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養護教師의 職務를 提示하고 있으나 敎職員의 健康管理에 대한 內容은 전혀 言及되지 않고 있다. 9) 10) 11) 이는 우리나라 學校保健事業이 學齡前兒童, 學生의 家族 및 地域社會등에까지는 물론, 敎職員의 健康管理 側面에도 아직 關心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敎職員은 이미 成年이며 社會人이므로 學生에 비하여 健康問題를 學校에 依存하는 程度가 한결 낮다고 하겠다. 12) 그러나 그들은 學生의 批判의 눈길에 注目을 받는 對象이요, 따라서 그들의 身體의 情緒的 人格的 缺陷은 學生들에게 持續的인 印象으로 남게 되므로 그들의 健康狀態는 그만큼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13) 다시말해서 敎職員의 健康은 學生들에게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要因이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의 健康을 管理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때 그들에게서 教育을 받는 學生들에게 미치는 影響도 相當하리라고 기대된다.

結果적으로 敎職員의 健康은 效率적이고 健全한 教育을 위해서 반드시 先行되어야 할 必須條件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理由로 美國에서는 敎職員에 대한 採用前 身體檢查를 免許證 發付와 함께 그 基準을 定하여 實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단 敎職員으로 採用된 後에는 追後管理를 위하여 檢查種目에 따라서 각각 다른 週期로 健康檢診을 實施하고 있다. 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採用前 身體檢查를 義務적으로 實施하고는 있지만 그 個人의 適性이나 身體的 條件이 실제 그 職業에 適合한지의 與否를 判斷하는 基準으로서라기 보다는 形式的인 面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14)

현재 敎職員에 대한 健康管理事業으로는 醫療保險管理公團에서 疾病의 早期發見 및 早期治療를 目的으로 每2年마다 실시하고 있는 被保險者 健康診斷事業이 있으며,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 傘下에 編成되어 있는 學校健康管理所에서 敎職員 健康增進을 위한 事業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勤務하는 약 5萬여명의 敎職員을 對象으로 每年 희망자에 限하여 成人病 檢查를 實施하고

있다. 15) 16) 특히 學校健康管理所에서 實施하고 있는 成人病 檢查는 1986年 10月 현재 45才 이상의 敎職員 家族에게도 희망자에 限하여 擴大 實施하게 되었는데 이는 學校保健事業에 있어서 重要한 發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學校保健에 대한 현실적 要求와 法制의 意圖를 類推해 볼 때 養護教師의 바람직한 役割은 한마디로 學校保健의 一線管理者로서 學校에서 一次保健醫療의 擔當者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12)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問題라고 해서 모두가 學校保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學校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學校生活에 있어서 發生하는 基本的인 健康問題는 學校保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은 學校라는 社會의 특성 및 대상자의 健康要求에 비추어 볼 때 第一次의인 措置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學校保健醫療의 觀點에서 接近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하겠다. 7)

그러므로 敎職員의 健康管理 側面에서는 그들의 健康問題를 健康觀察과 相談등을 통하여 早期에 發見하고 이를 活用可能한 地域社會資源에 依賴하며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健康診斷結果에 대하여 適切한 追後管理를 할 때 보다 校率的인 健康管理事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李 17) 등이 실시한 서울市内 中·高等 學校 養護教師의 學校保健業務에 대한 調查結果에 따르면 健康診斷結果 健康에 障礙가 있는 敎職員에 대한 追後管理로서 敎職員에게 異常有無를 通報만 해주고 있는 學校가 가장 많았음을 報告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養護教師의 業務가 敎職員의 健康管理 側面에는 아직도 未治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學校保健에 관한 既存의 研究들이 주로 學校에서 教育을 받고 있는 學生들을 위주로 考察되었으며 敎職員을 對象으로 한 健康問題 把握 및 이의 管理에 대한 노력은 거의 不振한 狀態에 있다.

이에 本人은 敎職員의 健康問題를 把握하고

그들의 養護室 利用實態를 分析함과 동시에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把握하여 보다 效率的인 敎職員 健康管理事業을 위한 基礎的 資料를 提供하고자 本 研究을 試圖하였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具體的 目的은 다음과 같다.

- 1) 敎職員의 健康問題를 把握한다.
- 2)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實態를 分析한다.
- 3) 敎職員의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把握한다.

II. 研究의 方法

1. 調査對象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調査內容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敎職員 健康診斷結果에 나타난 健康問題와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實態 把握은 서울市內國·公立中學校 179 個校 敎職員 10,615 名中 無作爲 抽出한 30 個校의 1,605 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2) 敎職員이 呼訴하는 健康問題 및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 把握은 對象學校 敎職員 1,605 名에게 設問調査를 實施한 結果 이에 應答한 30 個校의 803 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調査資料 및 期間

本 研究에 사용된 資料 및 調査期間은 다음과 같다.

1) 敎職員 健康診斷結果에 나타난 健康問題 把握은 醫療保險管理公團에서 調査對象者에게 1986 年 4 月 1 日부터 7 月 15 日까지 실시한 健康診斷資料를 利用하였다.

2) 敎職員이 呼訴하는 健康問題 및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 把握은 調査對象者에게 1986 年 6 月 20 日부터 7 月 20 日까지 1 個月 동안 主觀的으로 느끼는 健康問題와 健康管理上의 問題點에 關하여 設問調査를 실시한 資料를 利用하였다.

3)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實態 把握은 1986

年 6 月 20 日부터 7 月 20 日까지 調査對象者의 養護室 利用實態에 關하여 對象學校 養護敎師에게 記錄을 부탁했던 養護 記錄資料를 利用하였다.

3. 分析方法

本 研究의 具體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分析의 側面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었다.

1) 敎職員의 健康問題

① 健康診斷結果에 나타난 健康問題는 疾患別로 分類하여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別로 比較하였다.

② 設問調査結果에 나타난 健康問題의 分析은 呼訴하는 症狀을 W.H.O의 疾病分類表를 참고로 하여 健康問題 發生部位別로 大別한 다음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別로 比較하였다.

③ 養護室 利用者의 健康問題 分析은 健康問題를 發生部位別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具體的 症狀別로 파악하여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別로 比較하였다.

2)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實態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實態 分析은 全體 敎職員에 대한 養護室 利用率과 健康問題 呼訴者의 利用率 및 健康診斷結果 尤소건자로 判명된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率 등으로 구분 산출하여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別로 比較하였다.

3) 敎職員의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

敎職員이 느끼는 健康管理의 問題點과 敎職員이 기대하는 養護敎師의 業務內容, 敎職員이 원하는 相談 및 保健教育의 內容등을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別로 比較하였다.

이상의 分析에 사용된 統計는 百分率과 單位人口當 比率이다.

III. 研究結果 및 考察

1. 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研究對象者의 56.1 %가 女性이고 年齡別로는 20 代와 30 代가 全體의 78.3 %를 차지하고 있다.

敎職經歷別로는 1 年에서 5 年까지가 41.3 %

로 가장 많으며 1년미만에서 10년까지가 70.1%로 되어있다.(表1參照)

이는 1986年度 文教統計年報¹⁸⁾에 나타난 서울시 國·公立中學校 敎職員의 性別, 年齡別 敎職經歷別 分布 比率과 비슷한 樣相이다.¹⁾

(表1) 研究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단위: 명, %)

| 특성 | 구분 | 교직원수(명) | 백분율(%) |
|------|--------|---------|--------|
| 성 | 남자 | 704 | 43.9 |
| | 여자 | 901 | 56.1 |
| 연령 | 20~29세 | 843 | 52.5 |
| | 30~39세 | 414 | 25.8 |
| | 40~49세 | 208 | 13.0 |
| | 50세 이상 | 140 | 8.7 |
| 교직경력 | 1년미만 | 217 | 13.5 |
| | 1~5년 | 663 | 41.3 |
| | 6~10년 | 246 | 15.3 |
| | 11~15년 | 147 | 9.2 |
| | 16~20년 | 124 | 7.7 |
| | 21~25년 | 92 | 5.8 |
| | 26년 이상 | 116 | 7.2 |
| 계 | | 1,605 | 100.0 |

2. 敎職員 健康問題

敎職員들의 健康問題는 健康診斷結果와 設問 調査結果에서 나타난 健康問題 및 養護室을 利用하는 敎職員의 健康問題등 세가지 側面으로 把握하였다.

註 1) 1986年度 文教統計年報에 나타난 서울시 國·公立中學校 敎職員의 性別, 年齡別 敎職經歷別 分布를 보면 총 10,615명중 男性이 4,557명으로 42.9%이고, 女性은 6,058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732명으로 54.0%, 30대가 2,695명으로 25.4%, 40대가 1,301명으로 12.2%, 50세 이상이 887명으로 8.4%이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년미만에서 10년까지의 경력군이 총 7,411명으로 전체의 69.1%이었다.

1) 健康診斷結果에 나타난 健康問題

全體 敎職員 1,605名中 健康診斷結果 尤소견자로 판명된 敎職員은 98名으로 全體의 6.1%이었다.

疾患別로 보면 肝臟疾患의 尤소견율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循環器疾患 1.9%, 糖尿疾患 0.8%順으로 되어 있다.

(表2-1參照)

이러한 결과는 醫療保險管理公團에서 1984年度에 실시한 被保險者 健康診斷에서도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敎職員들에게 肝臟疾患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循環器疾患이었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이다.¹⁹⁾

(表2-1) 疾患別 尤소견자수 및 尤소견율

(단위: 명, %)

| 구분 | 질환 | 폐결핵 | 순환기질환 | 간장질환 | 당뇨질환 | 신질환 | 빈혈증 | 계 |
|-------|----|-----|-------|------|------|-----|-----|-----|
| 尤소견자수 | | 8 | 31 | 34 | 12 | 9 | 4 | 98 |
| 尤소견율* | | 0.5 | 0.9 | 2.1 | 0.8 | 0.6 | 0.2 | 6.1 |

$$* \text{尤소견율} = \frac{\text{尤소견자수}}{\text{전체 敎職員수}} \times 100$$

健康診斷結果에 나타난 健康問題를 性別 年齡別 敎職經歷別로 分析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먼저, 性別로는 男性의 尤소견율이 10.8%로 女性의 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文·金·林²⁰⁾ 등이 실시한 成人病 實態調査結果 男性이 女性보다 높았던 사실과는 일치하고 있으나 金·鄭²¹⁾ 등이 실시한 死亡 및 傷病資料에 反映된 韓國人의 疾病樣相 研究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반대이었다.

일반적으로 女性의 傷病率이 男性보다 더 높은 것은 공통된 사실로 認定되고 있으나 本 研究에서 사용된 健康診斷資料는 檢診種目的 大部分이 慢性疾患에 관한 것이었고 表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調査對象者의 性別 年齡別 分布에서 高年齡層일수록 女性의 比率이 낮았

던 이유 때문에 男性의 유소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疾患別로는 表 2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性의 경우 肝臟疾患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循環器疾患의 順이었던 반면 女性의 경우엔 간장질환 순환기질환 다음으로 貧血症이 높게 나타났다.

(表 2 - 2) 性別 疾患別 유소견자수 및 유소견율

(단위: 명, %)

| 질 환 | 남 | | 여 | |
|-------|--------|------|--------|------|
| | 유소견자 수 | 유소견율 | 유소견자 수 | 유소견율 |
| 폐 결 핵 | 8 | 1.1 | 0 | 0.0 |
| 순환기질환 | 25 | 3.6 | 6 | 0.7 |
| 간장질환 | 26 | 3.7 | 8 | 0.9 |
| 당뇨질환 | 10 | 1.4 | 2 | 0.2 |
| 신 질 환 | 7 | 1.0 | 2 | 0.2 |
| 빈 혈 증 | 0 | 0.0 | 4 | 0.4 |
| 계 | 76 | 10.8 | 22 | 2.1 |

$$* \text{유소견율} = \frac{\text{유소견자수}}{\text{전체 교직원수}} \times 100$$

年齡別로는 年齡이 증가할수록 유소견율도 증가했는데 이는 文·金·林²⁰⁾ 등이 실시한 成人病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結果와 같은 양상이다.

疾患別로 보면 20代, 30代, 40代에서 모두 肝臟疾患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50세이상 群에서는 循環器系疾患이 가장 높았다.(表 2 - 3 參照)

또한 肺結核과 循環器疾患 糖尿疾患은 年齡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면서 年齡과 관계있는 疾患임을 알수있는데 이는 文·金·林²⁰⁾ 등의 成人病 實態調査에서도 당뇨병과 高血壓의 경우엔 年齡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 結果와 같은 양상이며 結核의 경우에도 1984年度 의 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집계한 건강진단 結果보고서¹⁹⁾를 보면 年齡이 증가할수록 유소견자수가 증가했고 金·李²²⁾ 등의 全國 一部 零細地域 住民의 傷疾樣相과 保健問題에 관한 研究結果에서도 結核의 有病률이 年齡증가와 比例하

여 增加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980年度 結核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年齡층별 結核 有病률의 分布를 보면 35세 미만에서는 自然感染率의 減少나 B.C.G 접종의 增加등으로 平均 有病率보다 감소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年齡이 많아질수록 長年層에 있어서는 糖尿病과 같은 成人病에 罹患된 경우 合併症勢로 나타나는 結核 發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²³⁾

敎職經歷別 健康問題를 보면 敎職경력에 높아질수록 유소견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敎職경력이 年齡과 밀접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疾患別로 보면 16年에서 20年까지의 경력군과 26年 이상군에서는 循環器疾患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경력군에서는 肝臟疾患이 가장 높았다.

(表 2 - 3) 年齡別 疾患別 유소견자수

및 유소견율

(단위: 명, %)

| 질 환 | 20-29세 | | 30-39세 | | 40-49세 | | 50세이상 | |
|-------|--------|------|--------|------|--------|------|--------|------|
| | 유소견자 수 | 유소견율 | 유소견자 수 | 유소견율 | 유소견자 수 | 유소견율 | 유소견자 수 | 유소견율 |
| 폐 결 핵 | 1 | 0.1 | 1 | 0.2 | 2 | 1.0 | 4 | 2.9 |
| 순환기질환 | 1 | 0.1 | 4 | 1.0 | 9 | 4.3 | 17 | 12.1 |
| 간장질환 | 14 | 1.6 | 5 | 1.3 | 11 | 5.3 | 4 | 2.9 |
| 당뇨질환 | 1 | 0.1 | 1 | 0.2 | 4 | 1.9 | 6 | 4.3 |
| 신 질 환 | 3 | 0.4 | 2 | 0.5 | 3 | 1.4 | 1 | 0.7 |
| 빈 혈 증 | 3 | 0.4 | 0 | 0.0 | 1 | 0.5 | 0 | 0.0 |
| 계 | 23 | 2.7 | 13 | 3.2 | 30 | 14.4 | 32 | 22.9 |

$$* \text{유소견율} = \frac{\text{유소견자수}}{\text{전체 교직원수}} \times 100$$

循環器疾患 糖尿疾患은 年齡별로 보았을때와 같이 대체로 敎職경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순환기질환의 6年에서 10年까지 경력군의 유소견율을 보면 11年에서 15年까지의 유소견율보다 조금 높아서 敎職경력이 증가해도 유소견율이 약간씩 낮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敎職경력을 계산할때 他職場에서 勤務한 경력만으로 산출하였고 또한 敎職경력을 5年單位로 細分하여 比較했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라고 생각된다.(表 2-4 參照)

(表 2-4)

敎職經歷別 疾患別 有用者자수 및 有用者율

(단위: 명, %)

| 교직경력 질환 | 1년미만 | | 1-5년 | | 6-10년 | | 11-15년 | | 16-20년 | | 21-25년 | | 26년이상 | |
|------------|------------|----------|------------|----------|------------|----------|------------|----------|------------|----------|------------|----------|------------|----------|
|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有用者 자 수 | 有用者 율 |
| 폐 결 핵 | 0 | 0.0 | 1 | 0.2 | 0 | 0.0 | 1 | 0.7 | 2 | 1.6 | 2 | 2.2 | 2 | 1.7 |
| 순환기질환 | 0 | 0.0 | 1 | 0.2 | 4 | 1.7 | 2 | 1.3 | 7 | 5.7 | 5 | 5.4 | 12 | 10.4 |
| 간장질환 | 1 | 0.5 | 13 | 1.9 | 2 | 0.8 | 4 | 2.7 | 6 | 4.8 | 6 | 6.5 | 2 | 1.7 |
| 당뇨질환 | 0 | 0.0 | 1 | 0.2 | 1 | 0.4 | 0 | 0.0 | 2 | 1.6 | 3 | 3.3 | 5 | 4.3 |
| 신 질 환 | 0 | 0.0 | 3 | 0.4 | 1 | 0.4 | 1 | 0.7 | 3 | 2.4 | 0 | 0.0 | 1 | 0.9 |
| 빈 혈 증 | 0 | 0.0 | 3 | 0.4 | 0 | 0.0 | 1 | 0.7 | 0 | 0.0 | 0 | 0.0 | 0 | 0.0 |
| 계 | 1 | 0.5 | 22 | 3.3 | 8 | 3.3 | 9 | 6.1 | 20 | 16.1 | 16 | 17.4 | 22 | 19.0 |

$$* \text{有用者율} = \frac{\text{有用者자수}}{\text{전체 교직원수}} \times 100$$

2) 呼訴症狀에 따른 健康問題

먼저 設問調査에서 나타난 症狀呼訴率을 對象者의 일반적 特性別로 比較해 본 結果 表3과 같다.

症狀을 呼訴한 敎職員은 總577名으로 全體 應答者의 71.9%에 해당한다.

이를 性別로 보면 男性이 70.2%, 女性이 73.0%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고 年齡別로도 20代가 71.7%, 30代가 70.5%, 40代가 76.0%, 50세이상군이 70.8%로 큰 차이가 없었다. 敎職經歷別로 나타난 症狀呼訴率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이와 같이 일반적 特性別로 症狀呼訴率이 비슷하게 나타난 이유는 呼訴하는 症狀의 大部分이 急性疾患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敎職員이 呼訴하는 健康問題를 發生部位別로 大別하여 일반적 特性別로 比較해 본 結果이다.

全體的으로 보면 呼訴器系의 症狀呼訴率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消化器系 精神神經系 順이었다.

이는 金·鄭²¹⁾ 및 金·許²⁴⁾ 李·金²⁵⁾ 등이 행한 傷病調査에서 呼吸器系疾患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消化器系疾患이었던 結果와 같은 양상

(表 3) 一般의 特性別 症狀呼訴率

(단위: 명, %)

| 특 성 | 구 분 | 총호 소 자 수 | 응 답 자 수 | 증 호 상 소 율 |
|------------|--------|-------------|------------|--------------------|
| | | (a) | (b) | (a) ÷ (b) × 100 |
| 성 | 남 자 | 221 | 315 | 70.2 |
| | 여 자 | 356 | 488 | 73.0 |
| 연 령 | 20-29세 | 306 | 427 | 71.7 |
| | 30-39세 | 146 | 207 | 70.5 |
| | 40-49세 | 79 | 104 | 76.0 |
| | 50세이상 | 46 | 65 | 70.8 |
| 교 직 경 령 | 1년미만 | 72 | 92 | 78.3 |
| | 1-5년 | 245 | 352 | 69.6 |
| | 6-10년 | 79 | 118 | 66.9 |
| | 11-15년 | 68 | 90 | 75.6 |
| | 16-20년 | 47 | 60 | 78.3 |
| | 21-25년 | 29 | 41 | 70.7 |
| | 26년이상 | 37 | 50 | 74.0 |
| 계 | | 577 | 803 | 71.9 |

을 보이는 것이다.

性別로 比較해 보면 男性의 경우 消化器系가 36.8%, 呼吸器系 32.1%, 筋骨格系 21.3%

의 順이었던 반면에 女性은 呼吸器系 症狀呼訴率이 44.9 %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消化器系 40.8 %, 精神神經系 38.5 % 順으로 나타났다.(表 4 - 1 參照)

(表 4 - 1) 性別 呼訴部位別 健康問題

(단위 : 명, %)

| 성 | 남 | | 여 | | 계 | |
|------------|----------------|-----------|----------------|-----------|----------------|-----------|
|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 호흡기계 | 101 | 32.1 | 219 | 44.9 | 320 | 39.9 |
| 소화기계 | 116 | 36.8 | 199 | 40.8 | 315 | 39.2 |
| 순환기계 | 34 | 10.8 | 111 | 22.7 | 145 | 18.1 |
| 정신신경계 | 59 | 18.7 | 188 | 38.5 | 247 | 30.8 |
| 근골격계 | 67 | 21.3 | 142 | 29.1 | 209 | 26.0 |
| 비뇨생식기계 | 7 | 2.2 | 72 | 14.8 | 79 | 9.8 |
| 구강치아계 | 22 | 7.0 | 45 | 9.2 | 67 | 8.3 |
| 이·비·인후·안과계 | 47 | 14.9 | 144 | 29.5 | 191 | 23.8 |
| 피부·피하조직계 | 22 | 7.0 | 16 | 3.3 | 38 | 4.7 |
| 기타 | 6 | 1.9 | 9 | 1.8 | 15 | 1.9 |

$$* \text{증상호소율} = \frac{\text{증상 호소자수}}{\text{조사 대상자수}} \times 100$$

年齡別 呼訴症狀 部位別 健康問題를 보면 表 4 -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代, 30代, 40代에서는 呼吸器系 症狀呼訴率이 가장 높았던 반면 50세 이상군은 消化器系가 44.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50세 이상군에서 消化器系 症狀呼訴率이 높은 이유는 年齡이 增加할수록 消化器系 機能이 低下되어 消化不良과 같은 消化器系의 症狀를 呼訴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20代에서 40代까지의 年齡群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 問題는 消化器系 문제이었고 그다음이 精神神經系 順이었다. 50세 이상군에서는 消化器系 다음으로 呼吸器系 症狀呼訴率이 높게 나타났고 筋骨格系 症狀呼訴率도 26.2 %로 3位를 차지했다.

敎職經歷別로는 1年미만에서 15年까지의 경력군에서는 呼吸器系 症狀呼訴率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消化器系 精神神經系 順이었으며 16年이상군에서는 消化器系 症狀呼訴率이 높게 나타났다.(表 4 - 3 參照)

최근 敎育新報의 報道에 따르면 많은 敎師들이 과밀 학급에다 과중한 수업량으로 목이 쉬고 성대가 붓고 炎症이 생기는 喉頭炎에 시달리고 있어 喉頭炎이 敎師들의 新種 職業病으로 등장

(表 4-2)

年齡別 呼訴部位別 健康問題

(단위 : 명, %)

| 연령 | 20-29세 | | 30-39세 | | 40-49세 | | 50세이상 | | 계 | |
|------------|----------------|-----------|----------------|-----------|----------------|-----------|----------------|-----------|----------------|-----------|
|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율 |
| 호흡기계 | 184 | 43.1 | 77 | 37.2 | 41 | 39.4 | 18 | 27.7 | 320 | 39.9 |
| 순환기계 | 170 | 39.8 | 76 | 36.2 | 40 | 38.5 | 29 | 44.6 | 315 | 39.2 |
| 순환기계 | 85 | 19.9 | 30 | 14.5 | 17 | 16.3 | 13 | 20.0 | 145 | 18.1 |
| 정신신경계 | 138 | 32.3 | 64 | 30.9 | 34 | 32.7 | 11 | 16.9 | 247 | 30.8 |
| 근골격계 | 98 | 23.0 | 62 | 30.0 | 32 | 30.8 | 17 | 26.2 | 209 | 26.0 |
| 비뇨생식기계 | 62 | 14.5 | 11 | 5.3 | 4 | 3.8 | 2 | 3.1 | 79 | 9.8 |
| 구강치아계 | 27 | 6.3 | 24 | 11.6 | 11 | 10.6 | 5 | 7.7 | 67 | 8.3 |
| 이·비·인후·안과계 | 117 | 27.4 | 45 | 21.7 | 21 | 20.2 | 8 | 12.3 | 191 | 23.8 |
| 피부·피하조직계 | 15 | 3.5 | 12 | 7.8 | 7 | 6.7 | 4 | 6.2 | 38 | 4.7 |
| 기타 | 2 | 0.5 | 5 | 6.4 | 6 | 5.8 | 2 | 3.1 | 15 | 1.9 |

$$* \text{증상호소율} = \frac{\text{증상 호소자수}}{\text{조사 대상자수}} \times 100$$

(表 4-3)

敎職經歷別 呼訴部位別 健康問題

(단위 : 명, %)

| 교직경력 | 1년미만 | | 1-5년 | | 6-10년 | | 11-15년 | | 16-20년 | | 21-25년 | | 26년이상 | | 계 | |
|------------|----------------|---------------|----------------|---------------|----------------|---------------|----------------|---------------|----------------|---------------|----------------|---------------|----------------|---------------|----------------|---------------|
|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증상 호소 자수 | 증상 호소 율 |
| 호소부위 | | | | | | | | | | | | | | | | |
| 호흡기계 | 48 | 52.2 | 136 | 38.6 | 45 | 38.1 | 42 | 46.7 | 22 | 36.7 | 12 | 29.3 | 15 | 30.0 | 320 | 39.9 |
| 소화기계 | 43 | 46.7 | 131 | 37.2 | 40 | 33.9 | 36 | 40.0 | 25 | 41.7 | 15 | 36.6 | 25 | 50.0 | 315 | 39.2 |
| 순환기계 | 22 | 23.9 | 56 | 15.9 | 18 | 15.3 | 20 | 22.2 | 14 | 23.3 | 3 | 7.3 | 12 | 24.0 | 145 | 18.1 |
| 정신신경계 | 39 | 42.4 | 103 | 29.3 | 33 | 28.0 | 32 | 35.6 | 21 | 35.0 | 10 | 24.4 | 9 | 18.0 | 247 | 30.8 |
| 근골격계 | 25 | 27.2 | 73 | 20.7 | 35 | 30.0 | 32 | 35.6 | 20 | 33.3 | 8 | 19.5 | 16 | 32.0 | 209 | 26.0 |
| 비뇨생식기계 | 17 | 18.5 | 43 | 12.2 | 8 | 6.8 | 5 | 5.6 | 2 | 3.3 | 2 | 4.9 | 2 | 4.0 | 79 | 9.8 |
| 구강치아계 | 3 | 3.3 | 38 | 8.0 | 9 | 7.6 | 13 | 14.4 | 8 | 13.3 | 1 | 2.4 | 5 | 10.0 | 67 | 8.3 |
| 이·비·인후·안과계 | 36 | 39.1 | 79 | 22.4 | 26 | 22.0 | 22 | 24.4 | 14 | 23.3 | 7 | 17.1 | 7 | 14.0 | 191 | 23.8 |
| 피부·피하조직계 | 5 | 5.4 | 13 | 3.7 | 7 | 5.9 | 2 | 2.2 | 4 | 6.7 | 3 | 7.3 | 4 | 8.0 | 38 | 4.7 |
| 기타 | 0 | 0.0 | 2 | 0.6 | 2 | 1.7 | 3 | 3.3 | 5 | 8.3 | 3 | 7.3 | 0 | 0.0 | 15 | 1.9 |

$$* \text{증상 호소율} = \frac{\text{증상 호소자수}}{\text{증상 대상자수}} \times 100$$

한다고 한다.

한편 明²⁶⁾의 中等敎員 修行業務 調査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敎職經歷이 적을수록 교실이나 연수, 회의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經歷이 적을수록 呼吸器系 症狀呼訴率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낮은 經歷群에서의 呼吸器系疾患 發生頻度나 이미 앓고 있던 呼吸器系疾患의 惡化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16年이상 經歷群에서 消化器系 問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年齡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結果에서 나타난 敎職원의 健康問題를 요약해 보면, 健康診斷結果에서는 가장 빈번했던 疾患이 肝臟疾患과 循環器疾患이었던 반면에 設問調査에서 나타난 健康問題는 呼吸器系 消化器系 精神神經系가 大部分을 이루고 있어 健康診斷資料의 結果에서 보고된 疾病樣狀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같은 差異는 健康診斷資料의 특성상 검사 항목 자체가 成人病을 중심으로 한 慢性疾患에 관한 것이었고 검진실시일 하루에 초점을 두어

검지된 결과인 반면 設問調査는 평소어 느끼는 健康問題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3) 養護室 利用者の 健康問題

月間 養護室 利用件數를 各 件數마다의 健康問題 內容으로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全體 養護室 利用件數中 疲勞로 인한 養護室 利用件數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敎職員이 勤務도중에 疲勞를 느껴 養護室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健康問題가 消化器系로全體 利用件數의 18.7%이었고 呼吸器系는 18.2%로 3位를 나타냈다.

이를 性別로 보면 男性의 경우에 消化器系 問題로 養護室을 이용한 件數가 全體의 3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呼吸器系 18.9%, 皮膚·皮下組織系 12.3% 順으로 나타난 반면 女性의 경우 단순疲勞로 인한 利用件數가 가장 높아서 全體의 33.6%이었고 그다음이 呼吸器系 問題로 17.8%이었던 세번째로 높게 나타난 문제가 妊娠으로 인한 疲勞때문이었었는데 이는 全體의 10.8%이었다.(表 5-1 參照)

이와같이 女性의 경우에 疲勞로 인한 養護室 利用件數가 全體의 44.4%를 차지하여 男性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妊娠으로 인한 疲勞感이외에도 女教師가 疲勞를 느낄때 適切히 쉬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養護室을 주로 利用하고 있어서 나타난 結果라고 생각된다.

(表 5-1) 性別 健康問題別 利用件數 (단위: 건, %)

| 구분 | 성 남 | | 여 | | 계 | |
|----------|-----|-------|-----|-------|-------|-------|
| | N | % | N | % | N | % |
| 호흡기계 | 114 | 18.9 | 152 | 17.8 | 266 | 18.2 |
| 소화기계 | 200 | 33.1 | 73 | 8.6 | 273 | 18.7 |
| 순환기계 | 40 | 6.6 | 17 | 2.0 | 57 | 3.9 |
| 정신신경계 | 36 | 6.0 | 55 | 6.5 | 91 | 6.2 |
| 근골격계 | 39 | 6.5 | 32 | 3.7 | 71 | 4.9 |
| 비노생식기계 | 0 | 0.0 | 13 | 1.5 | 13 | 0.9 |
| 구강치아계 | 7 | 1.1 | 6 | 0.7 | 13 | 0.9 |
| 이비인후안과계 | 16 | 2.6 | 32 | 3.7 | 48 | 3.3 |
| 피부·피하조직계 | 74 | 12.3 | 63 | 7.4 | 137 | 9.4 |
| 피로 | 65 | 10.8 | 379 | 44.4 | 444 | 30.5 |
| { 단순 피로 | 65 | 10.8 | 287 | 33.6 | 352 | 24.1 |
| { 임시 피로 | 0 | 0.0 | 92 | 10.8 | 92 | 6.3 |
| 기타 | 13 | 2.1 | 32 | 3.7 | 45 | 3.1 |
| 계 | 604 | 100.0 | 854 | 100.0 | 1,458 | 100.0 |

年齡別로 보면 50세이상군에서는 循環器系가 2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呼吸器系 17.3%, 消化器系 16.5% 順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年齡群에서는 모두 疲勞로 인한 利用率이 가장 높았다.(表 5-2)

疲勞로 인한 養護室 利用件數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年齡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20대에서 30대까지의 女教師의 경우, 이 시기가 妊娠연령기에 있기 때문에 疲勞로 인한 養護室 利用件數가 他 年齡群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群에서는 循環器系나 口 齒牙系의 문제로 養護室을 利用한 교직원은 없었으며, 50세이상군에서는 泌尿生殖器系의 利用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敎職員의 健康問題를 健康診斷資料, 設問調査資料, 養護室 記錄資料등 세가지 側面으로 分析해 본 結果, 그들이 느끼는 가장 주된 健康問題는 呼吸器系, 消化器系 問題이었고 精神神經系, 筋骨格系 問題도 그다음으로 나타나는 問題이었다. 健康診斷 結果에서는 養護室을 利用하는 주된 이유가 疲勞로 인한 利用이었듯이 단순히 疲勞感을 느끼거나 症狀가 가벼워서, 평소애 病識이 없었던 肝臟疾患이나 循環器疾患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敎職員들이 年齡의으로 成人階層에 있기 때문에 成人病이 많이 發生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表 5-2) 年齡別 健康問題別 利用件數 (단위: 건, %)

| 구분 | 연령 | | 20-29세 | | 30-39세 | | 40-49세 | | 50세이상 | | 계 |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호흡기계 | 123 | 18.8 | 74 | 16.7 | 45 | 20.4 | 24 | 17.3 | 266 | 18.2 | | |
| 소화기계 | 107 | 16.3 | 104 | 23.5 | 39 | 17.6 | 23 | 16.5 | 273 | 18.7 | | |
| 순환기계 | 0 | 0.0 | 2 | 0.5 | 21 | 9.5 | 34 | 24.5 | 57 | 3.9 | | |
| 정신신경계 | 45 | 6.9 | 24 | 5.4 | 13 | 5.9 | 9 | 6.5 | 91 | 6.2 | | |
| 근골격계 | 25 | 3.8 | 29 | 6.6 | 6 | 2.7 | 11 | 7.9 | 71 | 4.9 | | |
| 비노생식기계 | 11 | 1.6 | 1 | 0.2 | 1 | 0.5 | 0 | 0.0 | 13 | 0.9 | | |
| 구강치아계 | 0 | 0.0 | 6 | 1.4 | 2 | 0.9 | 5 | 3.6 | 13 | 0.9 | | |
| 이비인후안과계 | 17 | 2.6 | 21 | 4.8 | 4 | 1.8 | 6 | 4.3 | 48 | 3.3 | | |
| 피부·피하조직계 | 62 | 9.5 | 40 | 9.0 | 19 | 8.6 | 16 | 11.5 | 137 | 9.4 | | |
| 피로 | 250 | 38.1 | 128 | 29.0 | 61 | 27.6 | 5 | 3.6 | 444 | 30.5 | | |
| { 단순피로 | 182 | 27.7 | 104 | 23.5 | 61 | 27.6 | 5 | 3.6 | 352 | 24.1 | | |
| { 임시피로 | 68 | 10.4 | 24 | 5.5 | 0 | 0.0 | 0 | 0.0 | 92 | 6.3 | | |
| 기타 | 16 | 2.4 | 13 | 2.9 | 10 | 4.5 | 6 | 4.3 | 45 | 3.1 | | |
| 계 | 656 | 100.0 | 442 | 100.0 | 222 | 100.0 | 139 | 100.0 | 1,458 | 100.0 | | |

다음은 養護室 利用者の 健康問題를 具體的 症狀別로 把握해 본 結果이다.

① 呼吸器系 症狀

呼吸器系 症狀의 大部分이 감기 증상이어서 이를 細分하였다. 全體의으로 보았을 때 콧물, 기침 증상이 가장 많아서 53.8%이었고 목아픔의 증상이 전체의 39.1%로 그다음 順位이었다.

목아픔의 증상은 단지 감기로 인한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목을 사용해야 하는 職業의 特性上 많이 나타나는 症狀이라고 생각된다.

年齡別로는 20대에서 목아픔의 증상이 52.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군에서는 콧물, 기

침 증상으로 양호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表 6 - 1 參照)

(表 6-1) 年齡別 呼吸器系 症狀

(단위: 건, %)

| 연령 | 20-29 세 | 30-39 세 | 40-49 세 | 50 세이상 | 계 |
|---------|-------------|------------|------------|------------|-------------|
| 증상 | | | | | |
| 꽃말, 기침 | 50 (40.7) | 43 (58.1) | 36 (80.0) | 14 (58.3) | 143 (53.8) |
| 목 아픔 | 64 (52.0) | 26 (35.1) | 8 (17.8) | 6 (25.0) | 104 (39.1) |
| 건신통 | 6 (4.9) | 4 (5.4) | 1 (2.2) | 4 (15.7) | 15 (5.6) |
| 혈, 변, 땀 | 3 (2.4) | 1 (1.4) | 0 (0.0) | 0 (0.0) | 4 (1.5) |
| 계 | 123 (100.0) | 74 (100.0) | 45 (100.0) | 24 (100.0) | 266 (100.0) |

② 消化器系 症狀

全體的으로 消化不良 증상이 가장 많아서 54.9 %이었고 복통이 19.8 %, 설사가 16.5 %이었다.(表 6 - 2 參照)

年齡別로도 모든 연령군에서 공히 소화불량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消化器系 症狀으로 양호실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에게 양호실에서 제공할 수 있는 看護內容이 주로 소화제 투약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他症狀으로 보다는 소화불량으로 양호실을 이용하는 件數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表 6 - 2) 年齡別 消化器系 症狀

(단위: 건, %)

| 연령 | 20-29 세 | 30-39 세 | 40-49 세 | 50 세이상 | 계 |
|------|-------------|-------------|------------|------------|-------------|
| 증상 | | | | | |
| 소화불량 | 66 (61.7) | 47 (45.2) | 21 (53.8) | 16 (69.6) | 150 (54.9) |
| 속 쓰림 | 6 (5.6) | 9 (8.7) | 6 (15.4) | 3 (13.0) | 24 (8.8) |
| 복통 | 17 (15.9) | 27 (25.9) | 7 (18.0) | 3 (13.0) | 54 (19.8) |
| 설사 | 18 (16.8) | 21 (20.2) | 5 (12.8) | 1 (4.4) | 45 (16.5) |
| 계 | 107 (100.0) | 104 (100.0) | 39 (100.0) | 23 (100.0) | 273 (100.0) |

③ 循環器系 症狀

순환기계 증상의 대부분이 高血壓과 관련된 증상으로 실제 고혈압으로 診斷받은 群과 고혈의 증상만을 느끼는 群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양호실 이용자의 84.2 %가 두증, 현위와 같은 증상만을 느끼는 群이었다.

年齡別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환기계 증상으로 양호실을 이용하는 件數가 증가하였고 특

히 20 代에서는 이 증상으로 양호실을 이용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表는 省略함)

④ 精神神經系 症狀

정신신경계 증상으로는 두통과 편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全體症狀의 94.5 %를 차지하여 거의 大部分이었다.

이와같이 정신신경계 문제로 양호실을 찾는 件數가 두통과 편두통 증상으로 限定되어서 나타난 이유는 養護敎師의 役割이 相談者로서 역할보다는 應急處置와 投藥行爲의 側面으로 치우쳐 있고, 敎職員의 認識도 그와 같아서 대부분의 敎職員이 投藥을 目的으로 養護室을 利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年齡別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 증상으로 인한 양호실 이용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表는 省略함)

⑤ 筋 骨格系 症狀

이 症狀群에서는 근육통이 43.7 %이며 관절통과 타박상이 각각 15.5 %로 이 세가지 증상이 全體의 74.7 %가 되었다.

年齡別로는 20 代, 30 代, 50 代 이상群에서 근육통 증상이 가장 많았고 40 代에서는 관절통과 요통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表 6-3 參照)

敎師라는 職業이 其他 사무직중에 비하여 서서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근육통이나 관절통 요통 증상등이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表 6 - 3) 年齡別 筋骨格系 症狀

(단위: 건, %)

| 연령 | 20-29 세 | 30-39 세 | 40-49 세 | 50 세이상 | 계 |
|-----|------------|------------|-----------|------------|------------|
| 증상 | | | | | |
| 근육통 | 12 (48.0) | 13 (44.8) | 1 (16.7) | 5 (45.5) | 31 (43.7) |
| 관절통 | 3 (12.0) | 2 (6.9) | 2 (33.3) | 4 (36.3) | 11 (15.5) |
| 요통 | 2 (8.0) | 2 (6.9) | 2 (33.3) | 2 (18.2) | 8 (11.2) |
| 염좌 | 3 (12.0) | 6 (20.7) | 1 (16.7) | 0 (0.0) | 10 (14.1) |
| 타박 | 5 (20.0) | 6 (20.7) | 0 (0.0) | 0 (0.0) | 11 (15.5) |
| 계 | 25 (100.0) | 29 (100.0) | 6 (100.0) | 11 (100.0) | 71 (100.0) |

⑥ 泌尿生殖器系 症狀

비뇨생식기계 증상은 13 件 모두가 생리통 증상이었다. 연령별로는 20 代가 11 件으로 가장 높았고 30 代와 40 代에서 각각 1 件이 있

었다. (表는 省略함)

⑦ 口腔齒牙系 症狀

구강치아계 증상으로는 구내염과 치통 증상이 全部로서 總 13 件中 치통이 11 件이었고 구내염은 2 件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에서 구강치아계 증상으로 양호실을 利用한 사람은 없었고, 30代에서는 6 件, 40代와 50 세이상군에서는 각각 2 件, 5 件의 이용이 있었다. (表는 省略함)

養護室의 施設 자체가 구강치아계 증상을 위한 處置施設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投藥을 目的으로 하는 증상 이외에는 양호실을 이용하는 건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⑧ 耳·鼻·咽喉·眼科系 症狀

이 症狀群에서는 눈의 증상이 77.1%이었고 귀와 코의 증상이 각각 18.8%, 4.1%를 차지하였다.

눈의 증상은 대부분은 눈피로, 충혈 증상이었고 귀의 증상은 외이도염이 주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눈피로, 충혈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表 6 - 4 參照)

(表 6 - 4) 年齡別 耳·鼻·咽喉·眼科系 症狀 (단위: 건, %)

| 연령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이상 | 계 |
|---------|-----------|-----------|----------|----------|-----------|
| 눈 다 레 켜 | 3 (17.6) | 4(19.0) | 1(25.0) | 1(16.7) | 9(18.8) |
| 눈피로, 충혈 | 7 (41.2) | 6(28.6) | 3(75.0) | 3(50.0) | 19(39.5) |
| 결막염 증상 | 4 (23.5) | 4(19.0) | 0(0.0) | 1(16.7) | 9(18.8) |
| 외이도염 증상 | 2 (11.8) | 6(28.6) | 0(0.0) | 1(16.7) | 9(18.8) |
| 비강내염 증 | 1 (5.9) | 1(4.8) | 0(0.0) | 0(0.0) | 2(4.1) |
| 계 | 17(100.0) | 21(100.0) | 4(100.0) | 6(100.0) | 48(100.0) |

⑨ 皮膚 및 皮下組織系 症狀

全體적으로 볼 때 외상이 5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화상으로서, 주로 活動範圍가 넓어서 생기는 사고로 인한 증상이었던 반면, 30代에서는 외상 다음엔 외상으로 인한 염증증상이, 40代와 50 세이상군에서는 피부염 증상이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皮膚의 抵抗力이 낮아져서 생기는 증상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6-5) 年齡別 皮膚皮下組織系 症狀

(단위: 건, %)

| 연령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이상 | 계 |
|----------|-----------|-----------|-----------|-----------|------------|
| 외상 | 40(54.5) | 20(50.0) | 9(41.4) | 5(31.2) | 74(54.0) |
| 화상 | 9(14.5) | 2(5.0) | 1(5.3) | 1(6.3) | 13(9.5) |
| 외상으로인한염증 | 2(3.2) | 9(22.5) | 2(10.5) | 1(6.3) | 14(10.2) |
| 종기 | 3(4.9) | 1(2.5) | 3(15.8) | 4(25.0) | 11(8.0) |
| 피부염 증상 | 7(11.3) | 6(15.0) | 4(21.0) | 5(31.2) | 22(16.1) |
| 벌레물림 | 1(1.6) | 2(5.0) | 0(0.0) | 0(0.0) | 3(2.2) |
| 계 | 62(100.0) | 40(100.0) | 19(100.0) | 16(100.0) | 137(100.0) |

(表 6 - 5 參照)

기타 症狀으로는 貧血症狀이 있었고 相談과 體重測定을 위하여 양호실을 이용한 건수도 각각 36 件, 5 件이 있었다. (表는 省略함)

3. 養護室 利用實態

1)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率

교직원의 양호실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一般的 特性別 養護室 利用率을 全體 敎職員에 대한 利用率과 症狀呼訴者의 利用率 및 健康診斷結果 유소견자의 養護室 利用率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全體 敎職員 1,605 名中 調査期間인 1 個月 동안에 1 회이상 양호실을 利用한 敎職員은 40.5%에 해당하였으며 症狀呼訴者의 양호실 利用率과 健康診斷結果 유소견자의 양호실 利用率은 각각 62.0%, 15.3%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敎職員의 養護室 利用實態에 관한 기존의 研究資料가 없어서 比較하기 어렵지만 趙²⁷⁾의 産業場勤務者의 醫務室 利用實態 調査에서 나타난 결과나 강²⁸⁾의 研究에서 나타난 産業場勤務者의 醫務室 利用率과 比較해 볼때 매우 낮은 利用率이다.

性別로 살펴본 全體 敎職員에 대한 양호실 利用率은 男·女가 각각 40.2%, 40.7%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증상호소자의 利用率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健康診斷結果 유소견자의 양호실 이용율에서는 女性의 경우가 22.7%로 男性의 13.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全體 敎職員에 대한 利用率에서

20代가 36.8%로 나머지 연령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症狀呼訴者의 利用率과 健康診斷結果 尤소견자의 양호실 利用率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敎職經歷別로 본全體 敎職員에 대한 養護室 利用率은 1年미만의 經歷群에서 28.6%로, 나머지 연령군의 利用率이 40%를 웃도는 것에 비하면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症狀呼訴者의 利用率에서는 1年미만의 경력군이 58.3%, 1年에서 5年까지의 경력군이 59.6%등으로 큰 差異를 보이지 않았고, 21年에서 25年까지의 경력군에서의 利用率은 75.9%로 나타나 他年齡群보다 약간 높았다. 健康診斷結果 尤소견자

의 利用率을 보면 1年미만의 경력군과 6年에서 10年까지의 경력군에서 양호실을 利用한 敎職員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 7 參照)

이상의 結果에서 敎職員들의 養護室 利用率은 性別 年齡別 敎職經歷別로 별 差異가 없이 一般的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特히 健康診斷結果 尤소견자의 養護室 利用率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學校保健事業에 있어서 養護室의 機能이 學生을 中心으로한 業務에 치우쳐 있고, 養護室 施設側面에서도 敎職員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不在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表 7)

一般的 特性別 養護室 利用率

(단위: 명, %)

| 구 분 | 전체 교직원 | | | 증상호소자 | | |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 | | |
|----------|-----------------|-----------------|------------------------|-------------------|-----------------|------------------------|------------------|-----------------|------------------------|------|
| | 대상 자수 (a) | 이용 자수 (b) | 이용 률 (b)÷(a)×100 | 증상호 소자수 (a) | 이용 자수 (b) | 이용 률 (b)÷(a)×100 | 유소견 자수 (a) | 이용 자수 (b) | 이용 률 (b)÷(a)×100 | |
| 성 남 자 | 704 | 283 | 40.2 | 221 | 139 | 62.9 | 76 | 10 | 13.2 | |
| | 901 | 367 | 40.7 | 356 | 219 | 61.5 | 22 | 5 | 22.7 | |
| 연령 | 20-29세 | 843 | 310 | 36.8 | 306 | 181 | 59.2 | 26 | 3 | 11.5 |
| | 30-39세 | 414 | 178 | 43.0 | 146 | 97 | 66.4 | 10 | 2 | 20.0 |
| | 40-49세 | 208 | 97 | 46.6 | 79 | 49 | 62.0 | 30 | 4 | 13.3 |
| | 50세이상 | 140 | 65 | 46.4 | 46 | 31 | 67.4 | 32 | 6 | 18.8 |
| 교직 경력 | 1년미만 | 217 | 62 | 28.6 | 72 | 42 | 58.3 | 1 | 0 | 0.0 |
| | 1-5년 | 663 | 269 | 40.6 | 245 | 146 | 59.6 | 27 | 4 | 14.8 |
| | 6-10년 | 246 | 101 | 41.1 | 79 | 53 | 67.1 | 3 | 0 | 0.0 |
| | 11-15년 | 147 | 70 | 47.6 | 68 | 41 | 60.3 | 9 | 2 | 22.2 |
| | 16-20년 | 124 | 53 | 42.7 | 47 | 29 | 61.7 | 20 | 4 | 20.0 |
| | 21-25년 | 92 | 43 | 46.7 | 29 | 22 | 75.9 | 16 | 2 | 12.5 |
| | 26년이상 | 116 | 52 | 44.8 | 37 | 25 | 67.6 | 22 | 3 | 13.6 |
| | 계 | 1,605 | 650 | 40.5 | 577 | 358 | 62.0 | 98 | 15 | 15.3 |

다음은 養護室 利用者 1人當 利用回數別 分布를 알아본 것인데 1回 利用者가 326名으로全體 利用者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回 利用者를 포함하여 5回 以上の 利用者가 93.4%로 나타났다.(表 8參照)

1人當 利用回數의 범위는 1回에서 19회까지

이었다.

2) 月間 養護室 利用件數

1個月동안 養護室의 總 利用件數는 1,458件으로 1個校當 48.6件이 되었고 1個月間 勤務日數를 24日로 보면 日間 平均 利用件數는 60.8件으로 나타나 1個校當 2件的 養護室

(表 8) 養護室 利用者の 1人當 利用回數

| 이용회수 | 이용자수 | 백분율 |
|-------|------|-------|
| 1 | 326 | 50.2 |
| 2 | 155 | 23.8 |
| 3 | 68 | 10.5 |
| 4 | 36 | 5.5 |
| 5 | 22 | 3.4 |
| 6-10 | 34 | 5.2 |
| 11-20 | 9 | 1.4 |
| 계 | 650 | 100.0 |

* 이용회수의 범위: 1회~19회 (평균 2.2회)

利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表 9 參照)

單位期間當 양호실의 총 이용건수를 전체 교직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전체 교직원 1人當 평균 利用件數는 0.9 회이었고 양호실 이용자의 1人當 평균 이용회수는 2.2 회이었다.

(表 9) 單位期間當 養護室 利用件數

| 구분 | 1개월간 | 1일간 |
|-------------|---------|--------|
| 전체 학교당 이용건수 | 1,458 건 | 60.8 건 |
| 1개교당 이용건수 | 48.6 건 | 2.0 건 |

4. 敎職員の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

교직원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파악은 교직원 스스로가 느끼는 건강관리의 문제점과 그들이 기대하는 養護敎師의 業務內容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相談 및 保健敎育內容등의 側面에서 考察하였다.

1) 敎職員이 느끼는 健康管理의 問題點

평소에 느끼는 健康管理의 문제점에 대하여 全體 應答者의 53.4 %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健康管理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고 相談할 對象이 없다' 는 점이 25.2 %, '健康問題에 대한 治療의 必要性을 못느낀다' 가 15.6 %를 차지하였다.

性別로 보면 男·女 공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42.9%, 60.3% 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나타난 문제가 '건강관리

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고 相談할 對象이 없다' 는 점이었다.(表 10-1 參照)

(表 10-1) 性別 健康管理의 問題點

(단위: %)

| 문제점 | 성 | | | 계 |
|-------------------------------|-------|-------|-------|---|
| | 남 | 여 | 계 | |
| 시간적 여유가 없다. | 42.9 | 60.3 | 53.4 | |
|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담할 대상이 없다. | 34.6 | 19.1 | 25.2 | |
| 경제적 여유가 없다. | 2.2 | 1.2 | 1.6 | |
| 치료기관이 너무 멀다. | 1.3 | 1.2 | 1.2 | |
| 건강문제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 14.6 | 16.2 | 15.6 | |
| 관심이 없다. | 2.8 | 1.0 | 1.8 | |
| 무응답 | 1.6 | 1.0 | 1.2 | |
| 계 | 100.0 | 100.0 | 100.0 | |

年齡別로 나타난 健康管理의 問題點도 모든 연령군에서 공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健康管理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고 相談할 對象이 없다' 가 그다음 順이었다.(表 10-2 參照)

(表 10-2) 年齡別 健康管理의 問題點

(단위, %)

| 문제점 | 연령 | | | | | 계 |
|-------------------------------|--------|--------|--------|--------|-------|---|
|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계 | |
| 시간적 여유가 없다. | 50.8 | 58.5 | 56.7 | 49.2 | 53.4 | |
|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담할 대상이 없다. | 26.0 | 23.6 | 22.1 | 29.2 | 25.2 | |
| 경제적 여유가 없다. | 1.1 | 1.9 | 2.9 | 3.1 | 1.6 | |
| 치료기관이 너무 멀다. | 1.6 | 0.5 | 1.0 | 1.6 | 1.2 | |
| 건강문제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 17.6 | 14.0 | 12.5 | 12.3 | 15.6 | |
| 관심이 없다. | 1.9 | 1.0 | 1.9 | 3.1 | 1.8 | |
| 무응답 | 1.0 | 0.5 | 2.9 | 1.5 | 1.2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상의 結果에서 보면 교직원이 느끼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는 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직원이 근무도중에 醫療機關을 訪問하기가 어렵고 또 勤務를 마쳤을 때는 診療時間에 늦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며 ‘健康管理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고 相談할 對象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養護敎師의 役割이 敎직원을 대상으로 保健敎育뿐만 아니라 健康相談者로서의 任務를 遂行해야 할 것임을 나타낸 結果라고 思料된다.

또한 세번째로 높게 나타난 문제점이 ‘健康問題에 대한 治療의 必要性을 못느낀다’라는 점이었는데 이는 健康管理에 대한 重要性의 인식 정도가 낮기때문에 나타난 結果라고 생각되며 金·鄭 21) 등의 調査 結果에서도 疾病이 있다고 판단된 件數의 약 20%가 전혀 아무런 治療를 받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養護敎師의 關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敎職員이 기대하는 養護敎師의 業務

敎직원 健康管理 側面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養護敎師의 業務內容은 全體적으로 ‘健康相談 및 保健敎育’의 內容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養護室 管理 및 運營’이 36.1%, ‘診斷과 治療 및 檢査’에 대한 기대가 6.3%를 차지했다.

이를 性別로 보면 表 11-1과 같이 男·女 모두 ‘健康相談 및 保健敎育’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養護室 管理 및 運營’에 대한 것이었다.

(表 11-1) 性別 기대하는 業務內容

(단위: %)

| 내용 | 성 | | | 계 |
|-------------|-------|-------|-------|---|
| | 남 | 여 | 계 | |
| 양호실 관리 및 운영 | 36.6 | 35.8 | 36.1 | |
|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 45.1 | 48.6 | 47.3 | |
| 환경관리 및 소독 | 5.1 | 3.1 | 3.9 | |
| 진단과 치료 및 검사 | 5.9 | 6.6 | 6.3 | |
| 계속적인 추후관리 | 5.1 | 4.3 | 4.6 | |
| 무응답 | 2.2 | 1.6 | 1.8 | |
| 계 | 100.0 | 100.0 | 100.0 | |

이러한 結果는 年齡別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表 11-2 參照) 養護敎師의 業務로 敎職員 健康管理을 위한 相談 및 保健敎育 實施

를 強化해야 하겠고 養護室 管理 및 運營側面에서도 敎직원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表 11-2) 年齡別 기대하는 業務內容

(단위: %)

| 내용 | 연령 | | | | 계 |
|-------------|--------|--------|--------|-------|-------|
|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이상 | |
| 양호실 관리 및 운영 | 34.7 | 38.4 | 38.1 | 35.1 | 36.1 |
|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 47.7 | 45.8 | 50.0 | 44.1 | 47.3 |
| 환경관리 및 소독 | 4.2 | 3.3 | 0.7 | 9.1 | 3.9 |
| 진단과 치료 및 검사 | 7.1 | 5.9 | 4.9 | 5.2 | 6.3 |
| 계속적인 추후관리 | 4.4 | 4.8 | 4.2 | 6.5 | 4.6 |
| 무응답 | 1.9 | 1.8 | 2.1 | 0.0 | 1.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3) 敎職員이 기대하는 相談 및 保健敎育 內容

全體적으로 보았을 때 ‘慢性疾患 豫防 및 管理’에 대한 기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定期 健康診斷에 대한 事前·事後 敎育 및 管理’의 기대가 31.9%이어서 이 두가지 內容이 全體의 67.1%를 차지했으며 精神健康에 대한 기대도 19.3%가 되었다.

이를 性別로 보면 男·女 모두 ‘慢性疾患 豫防 및 管理’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定期 健康診斷에 대한 事前·事後 敎育 및 管理’이었다.(表 12-1 參照)

(表 12-1) 性別 기대하는 相談 및

保健敎育 內容

(단위: %)

| 내용 | 성 | | | 계 |
|--------------------------|-------|-------|-------|---|
| | 남 | 여 | 계 | |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36.8 | 34.2 | 32.2 | |
| 정신건강 | 16.0 | 21.2 | 19.3 | |
| 계별적 위생敎育 | 8.0 | 8.1 | 8.0 | |
| 인구문계 | 1.6 | 1.1 | 1.3 | |
| 성敎育 | 2.4 | 2.4 | 2.4 | |
| 전염병 예방 | 0.8 | 0.8 | 0.8 | |
| 결핵예방 및 관리 | 0.5 | 0.0 | 0.2 | |
| 정기건강진단에 대한 事前·사후 敎育 및 관리 | 33.1 | 31.2 | 31.9 | |
| 무응답 | 0.8 | 1.0 | 0.9 | |
| 계 | 100.0 | 100.0 | 100.0 | |

年齡別로 보던 20代群에서는 ‘定期 健康診斷에 대한 事前·事後 教育 및 管理’의 內容이 全體의 32.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慢性疾患의 豫防 및 管理’가 29.0%, 精神健康이 20.9% 順이었던 반면에 30代이상군에서는 ‘慢性疾患의 豫防 및 管理’의 內容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기대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2-2 參照)

이상의 結果에서, 敎職員을 對象으로 한 相談 및 保健教育의 內容으로는 주로 成人에게 많이 發生하는 疾患을 中心으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中要性, 자기간호(self-care)의 方法등을 教育함이 증졌고 2年마다 實施하는 健康診斷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教育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思料된다.

(表 12-2) 年齡別 기대하는 相談 및 保健教育 內容

(단위: %)

| 내용 | 연령 | | | | 계 |
|---------------------------|--------|--------|--------|-------|-------|
|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이상 | |
| 단검질환 예방 및 관리 | 29.0 | 39.6 | 39.7 | 56.9 | 35.2 |
| 정 신 진 강 | 20.9 | 15.6 | 23.0 | 13.9 | 19.3 |
| 계절별 위생교육 | 10.8 | 5.6 | 5.5 | 1.4 | 8.0 |
| 인 구 문 제 | 1.3 | 1.1 | 0.8 | 2.8 | 1.3 |
| 성 교 육 | 3.2 | 1.5 | 1.6 | 1.4 | 2.4 |
| 전염병 예방 | 1.3 | 0.4 | 0.0 | 0.0 | 0.8 |
| 결핵예방 및 관리 | 0.2 | 0.0 | 0.0 | 1.4 | 0.2 |
|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 및 관리 | 32.0 | 35.8 | 28.6 | 22.2 | 31.9 |
| 무 응 답 | 1.3 | 0.4 | 0.8 | 0.0 | 0.9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I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敎職員의 健康問題를 分析하고 그들의 養護室 利用實態를 把握함과 동시에 敎職員의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問題點 등을 調査하여 보다 效率的인 敎職員의 健康管理事業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에 있다.

調査對象은 서울市内 國·公立中學校 30個校 敎職員 1,605名을 對象으로 그들의 健康問題를 把握하기 위하여 1986年度 健康診斷資料

와 1986年 6月 20日부터 7月 20日까지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를 分析하였으며 養護室 利用實態 파악은 同 期間동안에 대상학교 養護敎師들에게 記錄을 부탁했던 교직원용 양호 기록지의 內容을 分析하였다.

本 研究에서 얻은 主要 結果 및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敎職員의 健康問題

(1) 健康診斷結果에 의한 疾患 유소견자는 全體 敎職員의 6.1%이었다.

疾患別로는 肝臟疾患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循環器疾患 糖尿疾患 順이었다.

(2) 設問調査結果, 症狀을 呼訴한 敎職員은 全體 應答者의 71.9%에 해당했다.

呼訴症狀 部位別 健康問題는 呼吸器系 症狀呼訴率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消化器系, 精神神經系 順이었다.

(3) 養護室 利用者의 健康問題를 보면 養護室 利用件數의 30.5%가 波勞로 인한 問題였고 消化器系 18.7% 呼吸器系 18.2%로 全體 利用件數의 67.4%가 이 세가지 健康問題이었다.

症狀別로 보면 呼吸器系는 주로 감기였으며, 消化器系는 消化不良이 가장 많았고 循環器系는 高血壓 症狀이 주이고, 精神神經系는 두통이 94.5%로 大部分이었다.

筋·骨格系 症狀으로는 근육통이 43.7%로 가장 많았고, 泌尿生殖器系는 모두 생리통 症狀이었다.

口腔齒牙系 症狀은 치통이 84.6%이었고, 耳·鼻·咽喉·眼科系는 39.5%가 눈피로, 충혈 症狀이었다.

皮膚 및 皮下組織의 症狀은 외상이 54.0%로 가장 많았다.

2. 養護室 利用實態

1個月동안에 養護室 利用者는 全體 敎職員의 40.5%이었다. 症狀 呼訴者의 養護室 利用率은 15.3%이었다.

養護室 利用者 1人當 利用回數를 보면 1人當 平均 2.2回이었고 범위는 1回에서 19回

까지로 나타났다.

1個月 동안 總 利用件數는 1,458件으로 敎職員 1人當 平均 0.9回의 利用率을 나타냈다.

3. 敎職員 健康問題에 있어서의 問題點

(1) 敎職員이 느끼는 健康管理의 問題點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全體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敎職員이 기대하는 養護敎師의 業務內容은 健康相談 및 保健敎育에 대한 기대가 全體의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敎職員이 기대하는 相談 및 保健敎育의 內容은 慢性疾患의 豫防 및 管理에 대한 內容이 全體의 35.2%이었고, 그다음이 定期 健康診斷에 대한 事前·事後 敎育 및 管理의 內容으로 31.9%를 차지했다.

이상의 研究結果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 몇 가지 점은 政策的으로 考慮되어야 하겠다.

첫째, 敎職員의 健康管理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敎직원 건강관리사업은 每2年마다 醫療保險管理公團에서 被保險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健康診斷事業에만 依存하고 있는 실정인데, 學校敎育의 目的達成 및 校率化를 위해서는 敎職員들에게 많이 發生할 수 있는 특정 疾患에 대하여 別途의 健康檢診을 強化하고 이에 대한 適切한 追後管理를 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養護室이 敎職員 健康管理을 위하여 활발하게 利用될수 있도록 政府는 養護室 육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行政的, 財政的 支援 方案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둘째, 學校保健事業에 있어서 敎職員 健康管理을 위한 養護敎師의 努力이 要求된다.

敎직원의 健康問題 파악은 건강진단 결과나 설문조사 또는 養護室 利用者의 건강문제 分析 등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없으므로 養護敎師는 敎職員 건강관리를 위하여 敎職員用 養護 記錄誌를 마련하고 全敎職員을 對象으로한 持續的인 健康觀察 및 健康相談 등을 통하여 그들의 健

康문제를 파악하는 한편 效率的인 健康管理事業을 위한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 養護敎師에 대한 繼續的인 補修敎育이 切實하다.

健康에 異常이 있는 敎職員을 管理할 수 있고 健康문제 발견 방법 및 敎직원들에게 많이 發生할 수 있는 疾患에 대하여 相談 및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養護敎師의 能力涵養을 위한 繼續的인 補修敎育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花中：學校保健과 看護, 壽文社, pp.18 ~22, 1984.
2. 文敎部：學校保健法, 文敎法典.
3. 文敎部：學校保健法施行令, 文敎法典.
4. 李英子：우리나라 學校保健事業發展을 위한 기초연구, 大韓保健協會誌, Vol.11, No.1, pp.111 ~ 128, 1985.
5. 金花中：學校一次保健醫療의 研究開發 方向,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 強化 研鑽會 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81 ~91, 1985
6. 金花中：養護敎師 分布樣相과 關聯要因 分析, 서울大學校 大學院 保健學 博士學位論文, 1984.
7. 金正根：學校保健을 위한 一次保健醫療의 導入,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 強化 研鑽會 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27~32 1985.
8. 박노예：學校 養護敎師의 役割과 이의 수행상의 問題點,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 強化 研鑽會 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74 ~ 80, 1985.
9. 金花中：養護敎師 職務 및 직무분위 敎育 과정 開發에 관한 研究, 保健學論集, 제39호, pp.127 ~ 146, 1986.
10.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學校保健管, 1986
11. 윤종덕：學校保健法令 및 組織,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 強化 研鑽會 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57 ~ 67, 1985.
12. 金花中：養護敎師 役割模型에 관한 研究, 保

- 健學論集, 제 38 호, pp.33~44, 1985.
13. Alma, Lemir : The School Health Program, WB Saund Company, pp.297~299, 1965.
 14. 李善子外 2 : 地域社會 保健看護學, 新光出版社, pp.387~389, 1982.
 15. 吳熙鏞 : 市立學校健康管理所의 運營, 大韓醫學協會誌, Vol.23, No.5, pp.382~386, 1980.
 16. 徐聖濟 : 우리나라 學校保健事業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保健學 博士學位論文, 1985.
 17. 李善子, 李明淑 : 서울市内 中·高等學校 養護教師의 學校保健業務에 대한 調査, 保健學論集, Vol.14, No.2, pp.137~147, 1977.
 18. 文教部 : 文教統計年報, 1986.
 19. 醫療保險管理公團 : 1984 年度 被保險者健康診斷 結果報告書, 1985.
 20. 文玉綸, 金秉益, 林鉉述 : 成人病 實態調查 研究, 保健學論集, 제 31 호, pp.71~100, 1981.
 21. 金貞順, 鄭文姬 : 死亡 및 傷病資料에 反映된 韓國人의 疾病樣相, 保健學論集, No.3, 1976.
 22. 金貞順, 李振洙外 3 : 全國 一部 零細地域 住民의 傷病樣相과 保健問題에 관한 研究, 保健學論集, 제 30 호, pp.1~42, 1980.
 23. 大韓結核協會 : 韓國의 結核實態 (現況과 展望), 1984.
 24. 金仁達, 許程 : 우리나라 傷病과 醫療에 관한 社會醫學的 研究, Seoul University Journal, Medicine and Pharmacy Series (c), Vol.17, 1966.
 25. 李永春, 金庚是 : 우리나라 農村住民의 傷病과 醫療에 관한 調査研究, 農村偉生研究所, 1970.
 26. 明善牧 : 中等教員 修行業務 調査,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5.
 27. 趙東蘭 : 產業場勤勞者의 醫務室 利用實態,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28. 강지숙 : 스트레스가 一産業場勤勞者의 健康狀態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大韓看護學會誌, Vol.14, No.1, pp.1~20, 1984.
 29. 金命鎬 : 學校保健과 實習, 壽文社, 1978.
 30. 金京子 : 都市地域 國民學校 教職員의 學校保健關心度에 관한 調査·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1.
 31. 廉英姬 : 中·高等學校 教師의 스트레스 要因과 程度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32. 張光子 : 養護教師의 役割認識과 一般教師 및 學生의 役割期待에 관한 一研究, 大韓看護學會誌, Vol.4, No.2, pp.107~119, 1974.
 33. 金命鎬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學校保健問題, 學校保健, Vol.16, pp.6~8, 1978.
 34. American-Nurse's Association: Function and Qualifications for School Nurses, AJON, Vol.61, No.5, pp.93~97, 1961.
 35. Anderson, C.L.: School Health Practice, ed.5, at. Louis, CV Mosby Co., 1972.